



통합적 기독교세계관 연구방법론

성인경

지금은 공부 방법론의 혼돈시대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이고 이화여대 명예교수인 이어령 박사는 최근에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 추천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한 마디 했습니다. “20세기가 전문가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의 시대이다. 이제 어느 것 하나만 잘 하는 것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 앞으로 지식 사회를 선도해갈 인재들은 전문가들이 간과한 지식 대통합을 통해 분야를 넘나드는 창조적 사고를 해야 한다.”¹⁾ 그러나 과연 그 분이 말하는 “대통합”이 성경적 통합을 의미 할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통섭을 의미할까요?

1. 공부 방법론의 혁명

저는 그 분이 최근에 기독교인이 되신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말하는 것은 통합(integration)이 아니라 오늘날 유행하는 통섭(consilience)이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식의 대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으나 알고 보면 요즘 유행을 따라 통섭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통섭이 아니라 통합법입니다.

오늘날 “전공”이라는 이름하에 유행하는 “분석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분야를 전공하고 매우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도 대단히 많이 아는 것처럼 우쭐댈 수 있는 속칭 “전문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즉 꼬끼리 뒷다리 하나만 연구하고도 꼬끼리를 다 아는 체할 수 있는 분석적 연구(分析的 研究, analytic studies)가 그런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방법론의 문제는 공부할수록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는 것과 또 다른 전문 분야와 소통을 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런 분석적 연구방법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것이 “복수 전공”이란 이름으로 시행된 학제간 연구(學制間 研究, inter-disciplinary studies)입니다. 즉 꼬끼리 뒷다리와 앞다리와 같이 연구하면 꼬끼리를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시도해 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시도는 좋았으나 효과는 별로 없었습니다. 최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복수전공으로 관계학 발전이 있으나 지적유희로 끝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을 서로 연결해 보려는 다학문 연구(多學問 研究,

1) 로버트 & 미셸 루트벤스타인, 생각의 탄생, 박종성역, 에코의 서재, 9

종합적 연구 (綜合的 研究, synthetical studies)
 분석적 연구 (分析的 研究, analytic studies)
 학제간 연구 (學制間 研究, inter-disciplinary studies)
 다학문 연구 (多學問 研究, multi-disciplinary studies)
 범학문적 연구 (凡學問的 研究, trans-disciplinary studies)

 통합적 연구 (統合的 研究, integrate-disciplinary studies)

multi-disciplinary studies)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코끼리 앞다리, 뒷다리만 아니라 코와 눈과 입 등 여러 가지를 유기적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시도입니다. 양양 라브리까지 공부하러 오신 카이스트 교수님이셨던 이은정 박사는 “노벨상을 바라보려면 복수전공 정도로는 모자라며 이제는 다수전공을 해야

한다.”고 귀뜸을 해 주었습니다. 이 방법도 시도는 좋았으나 안타깝게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자기 전공을 전체 학문 세계에 조금 보태거나 지적 유희를 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학문을 일관된 이론의 실로 꿰매어 보자는 범학문적 (凡學問的 研究, trans-disciplinary studies) 접근”²⁾을 시도해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월슨이나 최재천 교수와 같은 사람들인데, 흔히 “통섭(Consilience)”이라고 통하는 이 방법은 코끼리 전체를 한 가지 이론의 실로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일관된 이론의 실’이라는 것은 ‘생물학’, ‘경제논리’, ‘진화론’ 등이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통합적 연구입니다.

통합적 연구는 지난 200년 동안 온 세계를 지배한 종합적 연구(綜合的 研究, synthetical studies) 혹은 변증법(dialectics)과는 다릅니다. “이성의 필연적인 자기 발전 논리에 입각한 세계 해석인 진리로서의 진리는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합이 상대주의와 함께 지배한다.”는 헤겔의 말처럼, “절대”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는 기초 위에서, 여러 사람의 견해가 어우러진 종합을 진리를 찾는 왕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합적 연구는 동양적 융합적 방법론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세기 신라의 원효(元曉, 617-686)가 주장한 “화쟁논리(和諍論理)”라는 것이 융합적 방법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서로 반대되거나 반정립적인 개념을 하나로 조화하고 융합하는 논리입니다. 이 방법은 마치 야채 죽처럼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통합적 연구는 “통섭법” 혹은 “범학문적 연구”와는 다릅니다.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학문을 일관된 이론의 실로 꿰매어 보자는 통섭은 마치 여러 가지 포도주를 섞어서 매우 이상적인 포도주를 만들려는 멋진 작업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통합적 연구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성경적 통합 연구 방법론

통합적 연구는 성경이라는 기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지식을 신앙과 “하나 되게” 하는 것(에베소서 4:13) 혹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 되게(to reach unity, to unify).”라는 말은 ‘통합하다’ 혹은 ‘통일시키다.’ ‘연합하다.’는 말인데, 학술 용어로는 관례상 통합이라고 사용합니다.

2) Edward O. Wilson, 통섭(Consilience), 최재천, 장대익 역, 사이언스북스, 21

‘통합’, ‘연합’, ‘하나 됨’이라는 말은, 본래 1)부부가 한 몸이 되듯이(마태복음 19:6; 마가복음 10:9), 2)하나님과 성도가 영적으로 연합하듯이(로마서 6:5), 3)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들이 서로 하나가 되듯이(로마서 12:5; ‘하전서 될’이12), 신앙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시키는 것(에베소서 4:13, 요한복음 17:11-22)을 말합니다. 통합적 연구 방법론의 원리는 고린도후서 10:4-6에 잘 나타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저의 책 [진리는 살아있다]³⁾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그 핵심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의 진리성을 모든 학문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경을 고린도후서 10:4에서 “영적 무기” 혹은 “강력(強力)”이라고 소개합니다. “강력”이라는 말은 표준 새번역에서는 “강한 무기”라고 번역된 것인데, 원래 그리스 권에서는 제우스 신이나 최고 통치자에게나 있는 ‘신성한 능력(divine power)’을 의미합니다. 신성한 능력이 있는 무기라는 것은, 이성이나 체험의 용광로에서 만든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달구어낸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견고한 진” 즉 요새, 어떠한 잘못된 사상의 거점도 파괴할 수 있고 심령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는 비수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 무기는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라도 산산조각을 낼 수 있으며 아무리 무서운 죄인도 변화시켜 새사람을 만들 수 있는 혁명적인 무기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은 총이나 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의 능력과 그 기능을 디모데후서3:15-17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감동과 지식을 전해 줄 수 있는 책은 이 땅에 얼마든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회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은 하나 밖에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성경이 어떤 능력이 있는 진리라고 믿습니까? 인생의 모든 질문에 대한 바른 설명과 대답이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며 내적 체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진리이고 절대적이며 일체의 오류가 없는 정확한 정보이며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리라고 믿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하고, 성경관이 건전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시편 19:7-11) 이 고백을 세계관적으로 정리하면 성경을 다음과 같은 진리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1) 성경은 참된 진리이다(true truth)
- 2) 성경은 명제적 진리이다(propositional truth)
- 3) 성경은 절대적 진리이다(absolute truth)
- 4) 성경은 현실적 진리이다(realistic truth)

3) 성인경, 진리는 살아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

- 5) 성경은 인식 가능한 진리이다(knowable truth)
- 6) 성경은 자유케 하는 진리이다 liberating truth)

(2) 비기독교적인 사상을 비판을 하는 단계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결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이 이 세상에 하나라도 남아 있는 한 싸워야 합니다. 대결을 위해서는 적을 먼저 알아야 하며 적은 잘못된 세계관이므로 그것부터 분석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된 세계관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이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무신론적인 이념들이나 비기독교적 종교철학이나 잘못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총칭합니다.⁴⁾

거짓 신념 혹은 잘못된 세계관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과 진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비기독교 세계관의 궁극적 목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세계관은 고도의 전문성을 자랑하며 하나님과 진리를 대항합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사상 그 자체로서 정지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모종의 결과를 이끌어 냅니다. 반역의 핵심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 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고 타락한 생활을 추구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 진리나 잘못된 사상과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을 “파하라”, 즉 ‘비판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파한다(demolish)”는 말은 ‘가루로 만든다.’, ‘박살낸다.’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정밀하게 비판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 잘못을 분명하게 가려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 진리와 타협하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믿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인류 역사가 증명하듯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 진리와 대결하지 않으면 비 진리가 진리를 잠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대결은 원수만 만들고 사람을 바꾸는 데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speaking the truth in love).”(에베소서 4:15)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쇼펜하우어가 그의 [칸트철학비판]에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의 작품(作品)에서 잘못과 오류를 지적해 내는 것은 그 작품을 명확하고 충분히 해명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다.”는 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마녀 사냥하듯이 공격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상은 그 진위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수용과 폐기 그리고 복종 여부를 잘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할 종교사상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비판할 때는 다음과 같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1)예술성 인정 aesthetics and creativity
- 2)기술성 평가 technique and skill
- 3)사상성 비판 philosophy and worldview

4) 역사적으로 고린도교회가 직면했던 세계관적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1)교회 안에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아볼로파니 하며 파당주의가 생긴 것과 2)각종 은사에 대한 우열논쟁이 생긴 은사주의가 준동한 것과 3)계모를 성폭행 한 놈이 있었으나 징계하지 않았고 동성애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쾌락주의를 방치한 것 등으로 보인다.

4)도덕성 평가 ethics and morality

5)종교성 검토 religious reality & spirituality

(3)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좋은 것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 “모든 이론을 사로잡으라(take captive every thought)”고 한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수용할만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배울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악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전혀 없는 것은 없습니다.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니까요. 무신론자나 비 기독교인이 주장하는 학설이나 이론이라도 기독교의 사상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수용의 역사적 예를 몇 가지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은 것이 많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전도 나무나 돌과 같은 재료뿐만 아니라 ‘바다’를 만든 주조기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히람으로부터 기술자를 사와서 만든 것입니다.

2) 바울 사도는 흔히 세속적이라고 하는 ‘구속(redemption)’과 같은 상업용어, ‘칭의(justification)’와 같은 법률용어, ‘말씀(로고스, Logos)’와 같은 철학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란 말은 전쟁용어이며 군사용어로서 기쁜 소식이란 승전 소식을 말합니다.

3) 아우구스티누스(St. Augustinus)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다.”는 말을 남겼는데, ‘2+2=4’와 같이 수학적인 진리를 기독교인이나 비 기독교인이나 상관없이 바른 진리이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4)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종교개혁가요 사회개혁가였던 칼빈(John Calvin)은 누구보다도 인문학을 폭넓게 수용한 성경의 사람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플라톤에게서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는 플라톤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아무리 플라톤의 철학이 쓰레기 같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진리가 있다면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것을 깨닫도록 도운 이성과 지식은 성령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⁵⁾

5) 그러나 한국교회는 전통문화로부터 수용보다는 반대와 파괴를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석굴암]을 만드는 데도 고도의 과학이 동원되었는데, 특히 자연 습기 제거 기술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정도로 고도의 건축공법인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여 교회마다 지하실은 물이 찹니다.

(4) 모든 사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단계입니다. 통합의 최종 목적은 모든 사상과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종시킨다(make it(thought) obedient to Christ)”는 것은, 마치 옛날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적장의 목을 발등상 혹은 발판으로 삼고 무릎을 꿇게 했듯이, 모든 이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비판, 수용하여 성경을 중심으로 기독교적 체계를 세우는 것이며, 학

5) Vicki Barrs는 그의 ‘칼빈과 교육’에서 제네바학술원의 교육철학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칼빈은 1559년에 그는 종합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이곳은 학생들에게 교양과목과 같은 인문학을 가르침으로써 교회 사역과 세상에서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준비하도록 설립된 학원이었다. 특히 칼빈은 학생들의 능력에 맞도록 과목을 책정하고 학생들 사이에 편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속 지식을 기독교적으로 요리해서 가르치지 말고 교양과목으로 제대로 가르치고 난 후에 비판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과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무릎을 꿇게 하여 기독교인 사상 체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때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중세 교회처럼 교회의 전통이나 현대 교회처럼 개인적인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모든 방법과 다르게 통합법은 성경적 기준 위에서 모든 지식이 정체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이 준거점을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여 바른 지적 체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때 소영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통합의 목적은 모든 지식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지 우리 자기 자신에게 복종시켜서 스스로 영웅이 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통합의 실패 원인 중에 하나는 '나의 논리'와 '나의 지식' 앞에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유혹 때문입니다. 누구나 학문적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으로 항복하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며 그 대가가 때로는 상당한 아픔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편만해 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빌려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헨델(George Frideric Handel)은 통합의 모델이며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Messiah)]는 1741년 56세의 나이에 비록 24일 만에 쓴 것이지만 “음악 작곡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영원 무궁히 남을 작품”⁶⁾입니다. 헨델에게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메시아]가 갖고 있는 탁월한 음악적 예술성과 창의성입니다. 또한 성탄절이면 많은 교회에서 부르는 '할렐루야 코러스'를 [메시아] 중간에 두므로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신학적 무게를 가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통합 작업에는 성경에 기초한 고도의 영성과 상상력 그리고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5) 세계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리 정교한 이론이나 논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는데,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평소에 순종하는 습관이 길 들여져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세계관을 공부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과 생활의 불일치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을 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나는 이 무기를 써서 맨 먼저 여러분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순종시킨 다음 나머지 모든 불순종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고 번역했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의 순종이 불신자들의 불순종을 징벌하시는 것보다 선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그들의 진리에 대한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순종해야 합니다.

6) Jane Stuart Smith & Betty Carlson, 음악의 선물, 서울서적, p.71 종교개혁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헨델(George Frideric Handel)은 통합의 가장 좋은 모델이다. 그는 젊어서는 이태리 음악, 특히 코렐리(Corelli)와 비발디(Vivaldi)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 외의 훌륭한 작곡가들로부터 배우고, 빌려오고, 베꼈으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만의 끊임없는 실험과 신앙을 통하여 기독교적인 새로운 음악 세계를 개척했다. 특히 그의 오라토리아 [메시아(Messiah)]는 1741년, 56세의 나이에 비록 24일 만에 쓴 것이지만 전 오페라 가수이자 스위스 라브리 간사였던 스미스와 칼슨이 잘 지적했듯이 “음악 작곡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으로 영원 무궁히 남을 작품”¹⁾입니다. 헨델에게 이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메시아]가 갖고 있는 탁월한 음악적 예술성과 창의성 그리고 신학적 확실성이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잘 이해한다면 진리가 요구하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는 세계관의 논리적 결론이 무엇인지 망각한다면 세계관을 공부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한3서 1:4) 하나님은 무엇을 제일 기뻐하시는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네가 다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까? 그 청년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참된 이웃 사랑인 것을 알았으나 실천을 못했습니다.(누가복음18:18-23) 이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 그 청년은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세계관을 안다고 그렇게 살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인간의 문제는 무지(無知)가 아니라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2) 그 청년은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전략이 있으면 다소 실패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원칙만 가지고는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실천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3) 그 청년은 감동적인 도전이 부족해서 실천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청년이 다 알고도 실천을 못한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처럼 원칙만 말씀하셨지 감동적인 도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청년의 문제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4) 그 청년은 세월이 더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원칙을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주어지고 멋진 경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독교 세계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너무 일찍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세부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 1) 치열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자.
- 2) 진리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공부하자.
- 3) 다음과 같은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하자.

“세계관 공부하는 놈들은 말만 많고 헌신은 안 하는 놈들이다.”

“세계관을 공부해 보았으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변화와 유익을 주지 못하더라.”

“세계관 공부는 엘리트들의 지식놀음이지 우리와는 상관없다.”

3. 성경적 통합연구의 실패의 원인

(1) 제일 무서운 미신은 객관주의(objectivism)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이고 학문은 학문이다.’ 혹은 ‘신앙과 학문은 완전히 다른 분야이다.’라고 보고,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과 신학이 진리라고 믿지만 신앙 이외의 문제는 해당 학문과 지식이 최종 권위를 가진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한 철학자는 그의 인생론에서 “나는 신앙하는 것과 철학하는 것을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보고 학

문을 했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사업가는 “성경대로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망합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성경과 신앙이라는 것은 학문과 사업과는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양립하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가진 학생이나 교사는 신학을 증명이 불가능한 신앙으로 보는 반면 학문은 증명이 가능한 지식으로 보며, 이 두 분야는 특정분야에 대한 고유한 권위와 코드를 가지고 있는 체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화와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안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은 “인식적인 영역에는 인격적인 요소를 개입시킬 수 없다며 오직 경험이나 이성을 통해 확증 가능한 지식만이 학문적 지식의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마스텐은 이런 입장을 “객관주의(客觀主義, objectivism)”⁷⁾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은 이와같은 객관주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신앙과 학문을 별개의 문제로 보거나 혹은 신앙과 학문, 사업 등은 양립 불가능한 두 영역으로 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객관주의의 가장 큰 피해는 성경과 학문 혹은 신학과 사업, 직장, 생활을 분리하는 이원론(dualism)에 빠지거나 그것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루이스(C. S. Lewis)는 “이원론이야말로 기독교 다음으로 용감하고 그럴듯한 신조이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세계 교회가 객관주의라는 미신에 빠져서 학문의 권위 앞에 성경의 권위를 포기하거나 학문과 성경을 분리하는 현상이 폭넓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 제일 조심해야 할 미신은 성경맹신주의(Biblicism)입니다. 객관주의와는 반대로, 이 방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며 세속적인 지식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말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⁸⁾라는 말씀을 따라 세상 지식을 다 버리고 성경만 알기로 했다고 자랑삼아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지나쳐서 성경 외의 모든 학문적 지식을 배타적으로 보는 것으로 결국 신앙에서 인식적 요소를 배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스텐은 이것을 “신앙주의”라 불렀지만 저는 성경주의(聖經主義, Biblicism)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쳐서 성경을 우상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학문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인데, 그것이야말로 영적 교만이고 지적 자살입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지고지선의 가치로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기독교를 신비적일 뿐만 아니라 지성적인 종교로 표명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그 첫째는 17세기 서양교회에서 일어난 경건주의 운동이고⁹⁾ 둘째는 20세기 세계교회에서 일어난 반과학주의 운동¹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와 반과학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바로 성경주의 혹은 신

7) 강영안, ‘조지 마스텐(G. Marsden)의 기독교적 학문연구@현대 학문세계’, 기독교학문연구소, 2000년 5.6월호, pp.2,3.

8) 빌립보서 3:8.

9) 경건주의는 17세기 서양교회가 지적 주도권(知的 主導權)을 비 기독교인들에게 넘겨주므로 그 후 지금까지 200년 이상 기독교가 비기독교적 학문에 종속되게 하였고 반 지성주의 집단으로 낙인찍히게 만들었다. 그 결과 서양교회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성과 과학으로 무장한 온갖 이데올로기에 초토화 되다시피 하였다.

10) 반과학주의는 과학을 기독교의 친구로 알기보다는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인데, 과학을 합리성의 총화로 보고 기독교

양지상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상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출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주의에 잘 빠지지 않지만, 시험에 떨어지거나 사업 혹은 결혼에 실패했을 때 가장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때 자주 듣는 말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배설물”로 여기고자 한 지식은 모든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지 않은 지식 혹은 성경과 신앙으로 통합되지 않은 모든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모든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사용한 용어나 전도방법을 보면 학문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학문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거나 예수에게 복종시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¹¹⁾

(3) 제일 멀리해야 할 미신은 혼합주의(syncretism)입니다. 혼합주의는 ‘성경과 세상 지식을 적절히 혼합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혼합 내지 융합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담심리학자 클랩(Larry Clabb)은 이 방법을 속칭 “야채 샐러드식”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 음식으로 말한다면 ‘짬뽕’, ‘비빔밥’, ‘섞어찌개’와 같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 시대에는 이 방법을 무시하면 바보로 통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미리부터 말하지만 혼합주의(混合主義, syncretism)는 진리의 타협이나 양보를 가져오게 하는 치명적인 미신입니다.

서양 교회가 즐기차게 타락한 것은 오래 된 혼합주의에 의한 영향이 큼니다. 신약 고린도교회 내부에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 하고”¹²⁾라는 말에서 보는 것과 같은 철학적 혼합주의 외에도, 구약 호세아 시대에 “여호와 종교가 바알과 혼합되고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 되니”라는 말처럼 정신적 영적인 혼합주의에 의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4) 제일 무서운 미신은 조화주의(harmonization)입니다. 우리나라는 혼합주의보다 조화주의가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조화주의(調和主義, harmonization)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유행 했던 것인데 불교 용어로는 “융합(融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지하는 우리 민족의 조화주의 습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구려 말에 연개소문이 유불도(儒佛道)의 삼교(三教)를 조화하여 새로운 정신운동으로 전개하여 국가와 민족의 중흥을 꾀하였고,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삼교의 조화정신을 가지고 화랑도를 고취하여 구국운동을 일으켰으며, 고려 중엽에는 묘청이 삼교의 사상을 조화하여 고유사상의 창달로서 민족적 자주 운동을 일으켰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조화사상을 조선조 말에 수운이 계승하여 삼교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조화하여 유럽의 천주교와 대결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과 종교를 수립하였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삼교에 기독교까지 조화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교의 신비성과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는 사람들의 신념체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근대과학이 하나님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1) 바울 사도가 사용한 신학적인 용어들은 본래 일반 학문이나 사회생활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었는데 성경적으로 수용한 것들이다. ‘화목(reconciliation)’은 진노를 풀기위한 희생제물을 바치는 성전적 의미로 사용한다.(로마서 3:25; 5:10,11; 고린도후서 5:18,19) ‘구속(redemption)’은 저당 잡힌 물건에 제값을 치루고 다시 사는 상업적 의미이다.(로마서 3:24; 8:23; 에베소서 1:7) ‘칭의(righteousness)’는 법적으로 무죄 추정을 받는다는 법정적 의미이다.(로마서 1:17; 3:5, 21, 22) ‘화해(peace)’는 고아 같이 집 잃은 자들이 가정 공동체의 일원으로 입양되어 평화를 가진다는 가정적 의미이다.(로마서 5:1; 8:6; 에베소서 2:14,15)

12) 고린도후서 2:17.

(5) 최근에 가장 매혹적인 미신은 영성주의(spiritualism)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만 있으면”, 저절로 공부를 잘 하게 되거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까지도 쉽게 바꾸어질 것처럼 이야기 합니다. 그들의 구호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영성만 좋으면 된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해답이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영성을 ‘괴물 같은 영성’ 혹은 편의상 ‘영성주의(靈性主義, spiritualism)’ 혹은 ‘성령주의’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성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유발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기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의 생각에 무관심을 부추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본래 미신이란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시적인 심리 안정과 이성적 마비증세를 일으키고 막연한 기대와 신비주의에 빠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관적인 미신에 빠지면 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 진리에 비상착륙하거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때에 어처구니없게도 지적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기도취와 만족에 빠지거나 혹은 막연히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흠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신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6) 가장 교묘한 적은 통섭주의(consilience)입니다.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고 모든 학문을 일관된 이론의 실로 꿰매어 보자는 범학문적(凡學問的 研究, trans-disciplinary studies)접근”¹³⁾을 시도해 보자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속칭 “통섭법”이라고 통하는 이 방법은 코끼리 전체를 한 가지 이론의 실로 연결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일관된 이론’이라는 것이 한 때는 진화론이나 마르크스주의였다면 지금은 생물학 혹은 바이오테크놀로지, 경제논리, 녹색혁명, 웰빙 등이 그것입니다. 이 통섭법 혹은 범학문적 연구는 상대적이면서도 매우 현실적인 실용 진리를 찾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차별적인 융합과 혼합 그리고 종합을 시도하는 지적 하이브리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어령과 로버트 & 미셸 루트번스타인이 제안하는 전인교육, 르네상스적인 인간 교육은 매우 의미 있는 제안이지만 2%가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안하는 길은 성경적인 통합이 아니고 절대적 기초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진화된 종합이며 세련된 통섭이기 때문입니다.¹⁴⁾

4. 맺는 말씀: 루이스와 셰퍼

루이스와 셰퍼는 진리와 지혜가 가득한 옷장입니다. 그 둘의 옷장은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옷장은 아니지만 구도자들과 회의자들이 좋아할 옷으로 가득합니다. 그 둘의 패션 취향은 너무나 비슷하여 어느 것이 누구의 옷장이었는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지만 약간의 다른 스타일과 색깔의 옷을 즐겨 입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세기가 낳은 가장 탁월한 전도자였으며 사상가였으며 변증가였던 그 둘이 깨달은 진리와 지혜의 옷장 문을 나란히 열어보려고 합니다.

13) Edward O. Wilson, 통섭(Consilience), 최재천, 장대익 역, 사이언스북스, 21

14) 참고, 박종성역, 예코의 서제, 33, 413

(1) 루이스와 쉘퍼의 닮은 점: 루이스와 쉘퍼는 한 번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루이스는 자기가 가르치던 옥스퍼드대학생들의 주선으로 토론회에 쉘퍼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쉘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성사되지 못했고, 쉘퍼는 루이스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라브리의 학생들에게 그의 책을 적극 추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루이스와 쉘퍼는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훨씬 많겠지만 나의 한계로 각각 세 가지씩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루이스와 쉘퍼는 기독교가 주관적 체험에 근거한다기보다 객관적인 사실과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2) 루이스와 쉘퍼는 둘 다 영혼 구원과 전도, 기독교 변증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3) 쉘퍼와 루이스는 철학, 문학, 사회 등 전 문화영역에 대해 비기독교적인 사상과 싸웠습니다.

(2) 루이스와 쉘퍼의 다른 점: 내가 처음 읽은 루이스의 책은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책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은 진리와 지혜의 옷장을 여는 감흥에 젖곤 했습니다. 특히 쉘퍼와 닮은 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을 발견할 때가 더욱 그랬습니다.

1) 루이스와 쉘퍼는 복음의 전달 방법이 서로 달랐습니다. 루이스는 강 건너에 있는 사람에게 풍부한 상상력과 수려한 문장력으로 아름다운 현수교를 놓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하면, 쉘퍼는 다양한 지식과 튼튼한 신학으로 사장교를 놓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2) 루이스와 쉘퍼는 신학적으로도 미묘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쉘퍼는 예수님의 죽음을 법적인 대속의 개념으로 설명했다면 루이스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쉘퍼는 자연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죄인을 심판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구원 얻는 데는 특별계시가 필요하다고 믿었으나, 루이스는 모든 계시에는 연속성이 있으며 신화까지도 우주적인 계시를 나타낸다고 보았습니다.

3) 루이스와 쉘퍼는 각각 학문의 통합적 작업을 하려고 애쓴 것은 분명하나 다르게 접근한 것은 분명합니다. 루이스는 하나님의 존재, 합리성과 도덕성, 악의 문제 등이 위기에 처했음을 알고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두뇌”가 포함된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두뇌”는 신비성과 합리성을 포함하는 성경적인 인식론에 근거한 지성이 모든 영역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쉘퍼는 절대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만이 그들이 직면했던 인본주의와 범신론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신학과 철학 그리고 역사, 의학, 예술 등 전 분야에서 개괄적으로 잘 펼쳐냈습니다.

나는 대학생 청년들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궁하면 루이스와 쉘퍼의 옷장을 자주 엽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장을 열 때마다 종교개혁 시대의 영적 거인들이었던 루터와 칼빈의 책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옷장을 바꾸어 가며 서로 보완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같은 문제를 씨름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살아온 여정이 다르고 접근방법에 차이가 있고 견해가 약간씩 다른 취향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서 속히 그들이 깨달은 진리와 지혜의 옷장을 더 활짝 열 날을 기다립니다. 그들이야말로 지난 시대에 통합적 연구방법론의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입니다.